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감추어진 모든 보화 성경: 골로새서 2장 6-19절 (Tag:삼위일체)

6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8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9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11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3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16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18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19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므로 자라느니라 (골 2:6-19)

감추어진 모든 보화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이다.

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왜 감추어져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이다.

2 ...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2:2-3)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지만 동시에 어떤 것들은 감추어져 있다.

다시 말해서 선택적으로 감추어져 있다.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 것일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어디에 감추어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자들에게)

물론 성경책을 뒤적이라고 해서 돈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엄마가 몰래 숨겨두지 않은 이상.

성경책에 담겨진 보화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이다.

현대는 지식사회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벌어들이는 수입에서도 차이가 난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돈 버는데 필요한 직접적인 지식이 아니다.(간접적인 지식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면 최신 휴대폰 기술이라도 배우든지, 최근 주식 동향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든지, 변호사가 알고 있는 새로운 법률지식을 익히게 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 원리가 되는 지식이다. 지식의 강물이 아니라, 지식의 샘물이다. 지식의 뿌리에 관한 지식이다. 이 지식을 제대로 잘 습득하게 된다면 모든 지식이 이로부터 근거하기 때문에 다른 세속적인 지식들을 익히는데 도움이 된다.

특별히 우리는 그것을 ‘진리’ 라고 표현한다.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시다. 오직 예수님만 진리이신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 생명도 다름 아닌 영생이다.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증거하시는 이가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시다.

26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15:26)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셨다.

그렇게 성령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증언하시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셨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셨다. 즉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롬8:16)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 저기 진리를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다. 오직 예수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물리적으로는 교회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받음으로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며, 우리는 교회의 기둥과 벽과 여러 가지 기구들이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심으로 교회가 하나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감추어진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삼는 방법은 교회 안에 거하며 예수의 심장으로 행하며, 예수의 눈으로 해석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감추어진 보화가 자기의 것이 된다.

6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 안에서란, 예수 안에서-즉 교회 안에서 (인격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믿는 자들은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다. 이들만 그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행한다. 그들에게만 감추어진 모든 보화가 주어진다.

-예수 안에;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를, 예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예수 안에서의 자기 객관화)

-기독교의 핵심은 내가 예수님을 판단하고 나의 이성으로 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의 심장으로 나를 이해하고 나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모든 교회에는 설교자가 있는데, 설교자를 통해 계시된 교훈을 믿

음으로 받아야 한다.(레마) 그러면 교회 안에서 굳게 서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

### 8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란, 세속적인 지식에 속한 것으로 속임을 당하지 말라는 뜻.

-항상 말씀에 굳게 서고, 교회를 통해서 교훈을 잘 받아야 한다.

### 9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교회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성령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의 몸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거하심. (일원론)

### 16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당시에도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에 관한 규정들로 율법을 삼아 그것을 지킴으로 복을 받거나, 구원을 받는다고 속였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즉, 분명한 진리에 굳게 서서 그런 악한 생각들을 대적하라는 뜻.

-성경은 예수님도 그렇듯이 항상 율법주의와는 분명하게 대적하고 있다.

### 18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꾸며낸 겸손으로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지(감히 섬길 수 없다고 함) 못하고 오직 천사를 섬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훼방하려는 술

책임.

-천주교도 마리아를 섬김으로 무서운 하나님과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섬길 수 있다고 속인다. 마리아를 섬김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속인다.

19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므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라;예수님을 붙들라!

그래야 내가 자라난다. 그래야 내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신령한 은혜를 공급 받는다. 그래야 연합하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난다.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